

가짜뉴스 정의

미국 대선 이후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이 혼용되고 있기에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실제 가짜뉴스라고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가짜 뉴스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팩트 체크' 시스템이 없는 1인 미디어가 보도한 자료가 가짜뉴스의 가능성이 크다고 하기엔 권위 있는 방송사인 CNN에서도 가짜뉴스를 내보낸 바 있다.

가짜뉴스 개념 정의 방법

1)작성 주체

- 1인 미디어나, 유명 언론사나 는 가짜뉴스 판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개념 정립 요소로서는 사용될 수 없음

2)작성 내용

- 사소한 오류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된 내용을 가짜뉴스라 판단할 수 없음

3)작성 목적이나 의도

-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착오를 일으키지만, 공익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쓰인 내용을 가짜뉴스라 볼 것인지 정해야 한다.

4)작성 형식

- 이름이나 발행일자가 누락된 경우 가짜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문자, 카카오톡 등의 수단에서 기사 형식을 갖추지 않은 내용의 분포는 가짜뉴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

분야마다의 정의

1)언론학에서의 정의

- 상업적 또는 정치적인 의도성을 가진 조작행위
- 수용자가 허구를 오인하는 양식으로 정보를 구성하고 전파
- 행위의 주체가 저널리즘의 양식을 따르지만,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본영의 기능과 동떨어진 행위

2)공학에서의 정의

- 정치, 경제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
- 범위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음

가짜뉴스의 범위

1)외형적 조건

1-1) 기사 형식 흉내 : 광고와 기사 구분의 규제 가능, 기사 형식 기준으로 규제 어려움

1-2) 언론사 가장 : 언론사 사칭 금지

2)내용적 조건

2-1)진실

2-2)허위 : 명예훼손 등 불법, 범죄인 경우 제한

2-3)풍자

가짜뉴스의 종류

1)가짜 정보의 유형

- 허위정보 :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오해를 부르는 정보
 - 거짓정보 : 고의로 조작한 정보를 사실로 가장
 - 오인정보 : 정보를 얻는 사람과 전파하는 사람이 정보의 사실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전파
 - 패러디/풍자적 페이크 뉴스 : 정보의 대상이 허구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주고 받는 정보
 - 루머/유언비어 : 불확실한 내용이 근거없이 퍼지는 소문
- = 가짜뉴스는 허위정보, 거짓정보 형태로 많이 생성

2)가짜 정보의 형태

- 동영상
- 사운드
- 이미지
- 텍스트 : 가짜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연설문, 문서 등의 형태

가짜뉴스 특징

1)가짜뉴스의 영향

- 사회적 신뢰저하 : 사회정보의 신뢰를 낮춰 여론질서를 훼손시키고 제도 및 공적 신뢰를 동반해서 낮춘다.
- 정치적 냉소주의와 참여 효능감 감소 : 허위정보와 극단 정보 등에 노출된 시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고, 냉소적으로 보며, 이로 인해 정치 참여의 효능감이 떨어져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정치적 집단극화 : 양극화된 정치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균형있는 정치태도 상실
- 극단주의 : 극단적 좌우 편향집단 등장

2)가짜뉴스 판별

- 언론사명과 기사 이름이 부정확
- 실체를 알 수 없는 전문가나 참고 자료 인용
-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
- 설명 없이 선동하는 주장만 포함
- 직접 취제한 내용이 아닌 누군가 "그렇다고 하더라"하는 정보

가짜뉴스 탐지기술

1)SNUFactCheck : 언론사와 대학이 협업하는 공공정보 서비스 모델

2)Fraunhofer :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분석하여 가짜 뉴스를 필터링하는 시스템

-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텍스트와 메타 데이터를 분석하여 분류하고 결과 최적화
- 트위터 및 기타 웹 사이트에 올라오는 가짜 뉴스 링크를 거를 수 있도록 함

3)Grover : 뉴스 기사의 본문, 헤드라인, 저자, 출판사 등 많은 측면을 분석하여 가짜 뉴스를 필터링할 수 있는 알고리즘

- 하드코딩되지 않음
- 연관된 내용의 다른 기사들과 일치하는지 확인

4)exBAKE :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BERT) 기반 가짜 뉴스 감지 모델

- 뉴스 헤드라인과 본문의 관계를 분석하여 가짜 뉴스 탐지
- 텍스트 기반의 가짜 뉴스에 초점을 맞춘 가짜 뉴스 탐지 모델

5)Politifac

- Poynter(언론인 배출을 위한 미디어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팩트 체크 사이트
- 진실 정도를 6단계로 나눠 라벨링

㉔ 기사의 내용이 사실인가?

㉕ 다른곳에서 기사를 접할 방법이 있는가? 해당 기사의 해석이 개방적인가?

㉖ 기사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그 증거가 사실인가?

㉗ 과거에 비슷한 기사내용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해 판단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6)Snopes

- 진실 정도를 12단계로 나눠 결과 도출

7)Claimbuster

- 미국 대선과 관련한 기사를 팩트 체크하는 데모
- 단계별로 나눠 라벨링 기준에 따라 결과 도출

8)Fiskkit

- 기사 링크를 입력하면 기사 안 문장에 대한 태그가 달림
- 태그도 기준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남

9)Factcheck.snu

- 서울대 언어정보연구소의 한국어기반 팩트 체크 시스템으로 Politifac 사용
- 언론사가 내용 업로드시 다른 언론사와 함께 팩트 체크

페이크뉴스 사이트 : 허위정보를 웹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풍자적 페이크뉴스와는 다르게 오락적 기능보다는 허위정보를 전달해 수용자가 현실을 오인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전략적이고 기만적인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제공한다.